

## 마태오 복음서 28장

**부활하시다**(마르 16,1-8; 루카 24,1-12; 요한 20,1-10)

### 1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 1)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가 지는 것으로 끝난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토요일 어둠과 함께 “주간 첫날”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간 첫날이 밝아 온다는 것은 일출과 함께 날이 시작하는 것을 계산하는 로마식 표현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이 표현을 오늘날의 주일 새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sup>
- 2)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을 새벽 6시로 본다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금요일 밤(아마 오후 6시경)부터 토요일 하루를 지나 주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만 하루 반 그리고 대략적으로는 제3일이 된다.
- 3)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을 것이며, 이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한 것이었다.

###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 3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 4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 1) 지진은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현현(顯現)의 일부를 이룬다.<sup>2)</sup> 그리고 하느님의 사신인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 2) 경비병들이 까무러친 것은, 하느님께서 나타나심의 결과이다 그러나 신앙의 눈이 없는 경비병들에게는 단지 무서움의 결과이다.

### 5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2쪽, 각주 1.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2쪽, 각주 3.

탈출 19,18 : 그때 시나이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었다.

시편 114,7 :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히브 12,26 :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 6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 7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 8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한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둘째, “와서 그분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즉 빈 무덤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다.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이다.

셋째,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힘을 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빈 무덤이 증명하며, 제자들에게는 이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마르 16,9-11; 요한 20,11-18)

- 9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1)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것은 그분께서 육신을 지니셨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대한 희망과 존경을 드리는 몸짓이다.<sup>3)</sup>

2)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 여기에 예수님의 인성(人性)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인성에 있어서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sup>4)</sup>

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2쪽, 각주 9.

4) 로마 8,29 :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 경비병들이 매수되다

- 11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 12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 13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하여라.
- 14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 주겠다.”
-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 1) 경비병들은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들, 즉 지진,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진 것, 천사가 나타나고 빈 무덤을 목격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사실을 확인하여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그 새벽의 기이한 사건들을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 2) 악과 돈은 항상 결탁한다.
- 3) 이 호교론적 이야기는 마태오 시대에 유대인들이 퍼트린 전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상상이야 멋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sup>5)</sup>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마르 16,14-18; 루카 24,36-49; 요한 20,19-23; 사도 1,6-8)

-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산과 언덕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곳이다.

-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자신을 온전히 낮춘다. 그러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예나 자금이냐 마찬가지로이다.

-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5)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3쪽, 각주 11.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1)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유혹의 산에서 악마가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것을 거부하신 분께서, 이제 그것을 하느님께 받으셨다고 선포하신다.<sup>6)</sup>
- 2) “모든 민족”은 이민족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다.<sup>7)</sup>
- 3) 가르침의 범위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이며, 가르침의 목적은 실천이다. 곧 지키게 하는 것이다.
- 4)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은혜나 지속적인 현존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도 “언제나” 효력이 있는 도움을 약속하신다.<sup>8)</sup> 이는 ‘보호자’ 성령을 통해서 보장되고 이루어진다.

---

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3쪽, 각주 15.

7)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3쪽, 각주 16.

이사49,6 :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8)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3쪽, 각주 18 참조.